8.15해방을 맞던 환희와 기세로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환호성이 삼천리강산을 진감하였던 감격의 그날로부터 어언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은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위인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3.1만세의 함성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의분과 《상해림정》의 우국지심도 일제의 야만적인 총칼통치앞에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던 암담한 시기에 손에 무장을 잡으시고 백두의 설한풍을 헤치며 조국해방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신분은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하고 험난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겨레는 그처럼 바라던 민족재생의 광휘로운 새 아침을 맞이할수 있었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피어린 력사와 조국해방의 위대한 업적은 반만년민족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흐르고 세대도 여러번 바뀌였다.

하지만 애국선렬들이 항일성전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며 그토록 갈망하였던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아직 이룩되지 못하였다.

조국의 남반부에서 일제의 강점 40여년이 미제의 강점 70년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해방, 민족의 자주권을 성취하지 못하고있으며 외세가 강요한 장기간의 민족분렬로 하여 우리 겨레는 참을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겪고있다.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교두보로, 극동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락시킨 미국은 오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들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과 군사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사대와 굴종에 물젖은 력대 남조선의 친미보수《정권》은 미국의 돌격대, 하수인이 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며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인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왔다.

이 시각도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에 의해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 이룩된 귀중한 합의들과 결실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조선반도에는 군사적긴장의 악순환속에 핵전쟁위험이 무겁게 떠돌고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우리는 올해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어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 공화국정부 성명 등을 통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과 조치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동족의 진정어린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계속 치닫고있다.

조선독립을 위해 피를 뿌린 수많은 애국선렬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간의 거의 두배나 되는 긴긴세월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원쑤처럼 등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비극적현실을 본다면 분노에 땅을 치며 저주할것이다.

그 어떤 역경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가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민족의 분렬과 고통의 화근을 제거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해나가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해방후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불법강점하여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도 미국이며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외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동서랭전이 종식된지도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주인노릇을 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구실도 없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속히 끝장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의 극복》은 바로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지배를 끝장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통일의 암적존재인 미국이 남조선을 타고앉아 모든것을 좌우지하고있는 조건에서는 북남관계를 궁극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없고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수 없는 남조선위정자들의 처지에서 《남과 북이 만들어가는 통일시대》란 과연 가능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철수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품에서 떨어져나와 성스러운 민족의 대오에 들어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촉구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와의 《대북압박공조》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2.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못하고있는것은 북남합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온 민족의 총의가 반영되고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환영을 받았으며 실천에서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훌륭한 원칙과 합의들이 있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도들이 다 들어있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채택한 민족공동의 합의문건들마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백지화되고 당리당략의 희생물로 악용된다면 당국사이에 합의를 열백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통일에 관심이 있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무엇을 자꾸 내들것이 아니라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들부터 인정하고 존중하며 리행하는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6.15시대에 활성화되여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들이 재가동된다면 구태여 북남당국이 마주앉아 다시 협력의 틀을 짜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당장이라도 화해와 단합,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사업이나 철도도로련결, 사회협력사업들도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다 반영되여있는 문제로서 선언들이 리행되면 원만히 해결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3. 북남사이에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면 상대방을 자극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한다.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도발과 전쟁위협,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부정, 서로에 대한 비방중상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쌍방간에 지속되는 적대행위는 북에도 남에도 리로울것이 없으며 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이바지되여야 할 막대한 력량을 헛되이 소모하게 할뿐이다.

이러한 적대적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협력, 교류사업도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백해무익한 적대행위를 대담하게 종식시키자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당면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며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북침전쟁연습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온갖 장벽들을 대담하게 허물어버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의 길을 차단하고있는 부당한 제도적장치들을 시급히 철회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신뢰》니, 《평화공원》이니 하는 말에 앞서 랭전과 동족대결의 산물인 콩크리트장벽부터 해체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놓으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적립장에서 이 근본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풀어나갈것을 촉구한다.

다음해는 8.15해방 70돐이 되는 해이다.

온 겨레는 8.15해방을 맞던 환희와 기세로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제의에 적극 화답하여 조국해방 7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조국통일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려는 온 겨레의 거족적대행진에 합류해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8월 14일
평양

시대가 미국에 던지는 물음

미국군대라고 할 때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침략과 략탈, 치떨리는 범죄소굴이라는 표상이 저절로 떠오른다. 모든 미군이 다 그러하지만 그중에서도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난 69년간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악의 무리, 패륜아들의 집단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침략의 원흉인 미군이 현지인민들의 드세찬 항거속에 제 소굴로 내쫓기우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 속에 남조선강점 미군의 운명도 도마우에 올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미국내에서 특히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속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련이어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 공화당계의 두뇌집단인 케이토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미국은 대조선반도안보공약을 리행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이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안보공약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의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보다 앞서서는 현직 미군장교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리유가 없으며 〈전시작전권〉도 서둘러 넘겨줘야 한다.》고 인터네트를 통해 주장했는가 하면 미국의 외교전문잡지 《디플로매트》는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남조선은 반주권국가》라고 야유조소하는 글을 실었다.

미국내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에 지미 카터가 39대 대통령선거당시 남조선강점《미군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주장과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하고있어야 할 하등의 리유와 명분이 없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철수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돌이켜보면 미국이 1945년 9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것은 당시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조선은 대륙에로의 교량》이라고 떠벌인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침략행위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도처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을 닥치는대로 해산하고 통일독립을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적인 《단선단정》을 조작하여 나라의 분렬을 고착화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한 미국은 더 나아가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을 흉심밑에 리승만도당을 조종하여 1950년 6월에는 북침전쟁을 도발하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으로 우리 겨레가 당한 재난과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미국은 조선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을 남조선에 무한정 주둔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온 남조선땅을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군사기지, 전쟁화약고로 만들었다. 남조선강점 미군에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도 대대적으로 반입되여 남조선은 1 000여개의 핵무기가 전개된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전쟁비상계획》(1970년대), 《3일전쟁계획》(1980년대), 《작전계획 5027-98》과 같은 각종 핵전쟁계획들을 짜놓고 대규모북침전쟁연습들을 해마다 발광적으로 벌리여왔다.

조선전쟁이후 지난 수십년간 미군이 남조선군과 함께 벌린 《팀 스피리트》,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은 1만여건에 이르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판문점사건 등 군사적도발건수는 무려 15만여건에 달한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강점 미군은 아시아침략의 선견대로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지속적으로 긴장시켜온 장본인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난 수십년간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만을 가져다준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기도 하다.

오늘도 우리 민족의 피를 끓게 하는 로근리집단학살사건, 동두천녀인삭발사건과 의정부녀인뼁끼칠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두 녀중학생살해사건 등 남조선강점 미군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존엄을 유린한 범죄행위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또 남조선의 가는 곳마다 둥지를 튼 미군기지들에서는 남조선녀성들의 존엄을 유린하는 성노예범죄가 일상적인 《일과》로 되여왔으며 미군기지들에서 내다버린 폐기물과 독해물에 의해 주변토양과 강하천이 심각히 오염되였다. 뿐만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밑에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남조선인민들의 혈세가 미군유지비로 바쳐지고 이로 인해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령락되여왔다.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지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동안 남조선돈으로 12조 1 2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로 바쳐졌으며 미국은 해마다 더 많은 돈을 내라고 남조선당국의 숨통을 조이고있다.

오늘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막대한 전쟁비용을 쏟아부은것으로 하여 사상최악의 재정위기에서 허덕이고있다.

하여 지난해에 삭감한 460억US$를 포함하여 10년내에 5 000억US$의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것이 바로 미국의 가련한 처지이다. 남조선강점 미군도 로무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가 하면 항공모함과 같은 전쟁장비들을 움직일 돈이 없어 군사연습의 규모도 축소해야 할 신세로 전락되였다.

세계여론이 한결같이 재정악화에 허덕이는 미국자신을 위해서도 남조선강점 미군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야유조로 충고하고있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최근에 여러차례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발사훈련들은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 미싸일타격력에 질겁하여 본토방어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남조선에 씌워놓은 《핵우산》따위로 미군과 남조선군을 《보호》할수 있다고 타산하는것은 오산에 불과하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인민군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되여 전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의 시대는 망해가는 악의 제국-미국에게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감정에 수치스럽게 쫓겨가거나 인민군대의 섬멸적인 보복타격에 화를 뒤집어쓰겠는지, 아니면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과 평화보장은 물론 미국자신을 위해서도 남조선강점 미군을 스스로 철수시키겠는지.

조선민족과 미국에 다같이 리로운 답은 오직 하나,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에서 《유엔군》을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를 늦게나마 리행하는 그 길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있어봐야…

최근 남조선당국이 2015년에 예견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또다시 연기하려하고있다.

8월 6일부터 이틀간 워싱톤의 미국방부청사에서 있은 남조선미국 제2차 고위급회의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이번 회의에서 남조선당국은 《북의 핵, 미싸일위협》과 저들의 《대응》능력 등을 운운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2020년이후로 연장해줄것을 청탁하였다.

남에게 빼앗긴 《전시작전권》을 되찾을 대신 동족대결을 위해 그 연장을 꾀하는것은 그야말로 쓸개빠진 반민족적죄악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은 이미 지난 2012년 4월 미국이 남조선에 넘겨주기로 되여있었으나 리명박《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해줄것을 간청하여 연기된바 있다. 그런데 현《정부》가 또다시 상전에게 2020년이후로 연기해줄것을 애원하는 눈뜨고 보지 못할 추태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사실상 현 남조선당국자는 2012년 《대선》당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자기의 중요한 《대선》공약으로 내들었으나 권력을 차지하기 바쁘게 이를 집어던지고 미국상전을 따라다니며 그 연기를 졸라댔다.

사고가 정상이라면 자기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현시기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놓고 미국내에서까지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할 리유가 없으며 〈전시작전통제권〉도 서둘러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런데 오히려 넘겨받겠다고 해야 할 주인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있으니 미국에 빌붙어 살아가는 가련한 그 몰골이야말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위협》이니 뭐니 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연기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오늘 조선반도는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첨단전쟁장비전시장으로 전변되였으며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다치면 쏟아질듯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평화를 위협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미국과 함께 대규모《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려 함으로써 내외의 규탄을 받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남조선에 미군이 주둔하여야 할 뚜렷한 리유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방대한 침략무력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오늘과 같이 제집처럼 드나들수 없게 된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남조선 역시 미국을 등에 업고 상전의 핵무기와 첨단전쟁장비들의 《덕》을 입어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승공통일》, 《흡수통일》의 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던 망상이 풍지박산날 위험에 처하게 되는것이다.

이러한데로부터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어리석은 《승공통일》,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그 연기를 간청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오산하고있다. 현 시대는 자주의 시대이다. 침략적인 외세에 빌붙어 운명을 부지해보려 해보아야 굴종의 올가미는 더 조여지게 되고 겨레의 규탄배격의 목소리만 높아가게 될것이다. 선군조선의 반미대결전의지앞에 전전긍긍하며 제 몸보존도 하기 힘들어하는 미국이 언제까지 남조선의 운명의 《보호자》로 되여줄리는 만무하다. 그때에 가서 사대굴종의 후과가 얼마나 큰가를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게 될것이다.

리영환

한세기이상 쓰고있는 식민지멍에 (2)

《대통령》도 마음대로 떼고 붙인다

남조선에서는 누구든지 청와대의 주인노릇을 하려면 미국의 《인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대통령》을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하는 실권자가 미국이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 《초대대통령》을 한 리승만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길들여온 친미주구였다.

미국은 그를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으로 써먹기 위해 군용비행기에 실어왔다.

미국의 총칼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된 리승만은 말그대로 미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다하였다.

친미매국배족행위와 전쟁, 파쑈폭압으로 일관된 리승만역적의 악정은 마침내 4.19인민봉기를 폭발시켰다.

리승만역적이 민심의 심판대에 올라 주구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자 미국은 《대통령》자리만은 어떻게하나 부지하려고 앙탈을 부리던 그에게 《8개항대책》을 내리먹이고 하와이에 보냈다.

미국은 리승만역적을 제거한 후 《내각책임제》에 기초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들고나와 오랜 친미주구 장면을 《국무총리》로 앉혔다.

그러나 부패무능한 장면《정권》역시 상전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였다.

남조선에 빚어진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날을 따라 고조되는 인민들의 투쟁, 조국통일기운에 질겁한 미국은 맥을 추지 못하는 장면《정권》을 군부깡패들이 뒤집어엎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였다.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제 한목숨을 건지려고 부랴부랴 미국대사관숙소에 찾아간 장면을 미군보초병이 끝내 들여보내주지 않은 사실은 미국이 리용가치를 상실한 주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실례이다.

박정희를 비롯하여 《5.16군사쿠데타》를 감행한 주동분자들은 두말할것없이 미국이 선발하였고 군사정변을 막후에서 조종한것도 미국이였다.

박정희일당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뒤받침이 있어 군사쿠데타를 성사시킬수 있었다.

이에 대해 1961년 당시 미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있던 죤 알렌 덜레스는 《내가 재임중 CIA의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한것이 이 혁명(5.16군사쿠데타)이였다.》고 실토함으로써 그 원흉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았다.

세계정치사에 류례없는 《유신》파쑈독재체제까지 조작하여 미국에 충성을 다한 박정희였지만 미국은 식민지통치위기수습을 위해 그를 암살의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박정희를 직접 사살한 김재규가 《〈대통령〉은 사살되였다. 죽인 사람은 나다.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호통친 사실은 미국이 《유신》독재자살해사건의 조직자이며 지휘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후 《12.12숙군쿠데타》와 《5.17파쑈폭거》를 고안하여 전두환에게 권력의 감투를 씌워준것도, 6월인민항쟁이후 음흉하고 교활한 배후조종으로 민주세력을 분렬시키고 로태우의 《대통령》당선을 조작한것도 바로 미국이다. 《문민》독재자 김영삼이도 당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의 총감독밑에 《3당통합》이라는 정치야합극을 연출하여 권력의 자리에 기여올랐다. 리명박의 경우도 례외가 아니다.

저들에게 충실한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작정한 미국은 2006년 3월 리명박을 초청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게 해주고 《국회》에서 《리명박의 날》이라는 행사까지 조직해주었으며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정책연구기관들에서 연설도 하게 하였다.

그런가하면 언론들을 내세워 리명박을 그 무슨 《차세대지도자》, 《유력한 〈대선〉후보》 등으로 추어올리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비롯한 현지의 인물들을 내세워 극우보수단체들을 《정권》탈취에로 공공연히 부추기였다.

2012년 미국이 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백악관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보좌관 등의 인물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대통령》후보들의 공약과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놀음을 벌린 기본목적도 친미《정권》연장에 있었다.

8.15해방후 남조선에서의 부단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식민지통치위기의 산물과 그 수습책의 일환으로서 정치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남조선사회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